

#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the Operation on the Bibliotherapy Program: A Case Study of Public Libraries in Ulsan

김 순 화(Soon-Hwa Kim)\*

### 초 록

이 연구는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과 내용, 참여자의 반응,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으며, 단위 도서관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도서관 중심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유형은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치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을 강조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was analyzed for the managerial status of Bibliotherapy Programs in the public library. For this, managerial methods and contents, reactions and problems of participants were considered, and also the capability of adaptability in local libraries was groped. Based on the understandings of Man's pain and grief, patterns of library centered Bibliotherapy Program were emphasized for participants to attend the course of the therapy called 'the pattern of experience' directly.

키워드: 공공도서관, 사서, 독서치료, 체험형, 진정성

public library, librarian, bibliotherapy, the pattern of experience, sincerity

---

\* 울산중부도서관 사서(soowa@mail.use.go.kr)

논문접수일자 : 2006년 5월 16일 논문심사일자 : 2006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자 : 2006년 6월 13일

## 1. 들어가며

일하는 중간 중간 잡다한 서류들 속에 섞여 있는 도서관 관련 간행물을 훑어본다. 아른 아른 연구자의 시선을 잡아끌지만 '이 일부터 끝내고 보자'며 살며시 옆으로 밀쳐 둔다. 오늘은 마음을 다잡고 책을 펼쳐 든다. 무슨 내용이 있을까? 우선 목차부터 훑어본다. '특집,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도서관 현장 사서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듯 하다. 계속 읽어보기로 한다.

어느덧 시립도서관에 근무한 지 18년째에 접어든다. 과연 도서관 발전을 위해 나는 얼마나 성실했을까? 얼마나 지혜로웠을까?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있었을까? 출근하면서, 잠자면서, 세수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나는 나의 수식어이다. 나는 사서이므로...(우경옥 2006, 49).

'나는 사서이므로...'라는 문구에 마음이 한동안 머문다. 연구자 역시 현장에서 17년 동안 근무한 사서이다. 그리고 현장의 경험이 학문 활동으로 연계되기를 바라는, 일이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글이 되기를 '꿈'꾸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꿈'에 이르기 위해 도서관 문턱을 넘나들면서 밤낮으로 의식의 한 부분을 끝내 놓지 못하고, 안타까움의 길목에서 서성이기도 했다.

그 긴 길목을 성큼 건너게 된 것은 '독서치료'를 만나면서였다. 2000년 여름, 연구자에게 학문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교수로부터 우연한 기회에 몇

권의 책을 소개받게 되었다. '내가 요즘 정신분석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캇 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신승철·이종만 옮김, 열음사, 2001)과 『거짓의 사람들 : 인간 악의 치료에 대한 희망』(윤종석 옮김, 두란노, 2000), W. 휴 미실다인의 『원만한 정서생활을 가로막는 몸에 밴 어린 시절』(이종범·이석규 옮김, 가톨릭교리신학원, 2001)을 권했다.

그 날 이후 그저 책에 대한 욕심만으로 주문을 했다. 그런데 그 책을 접하면서 전혀 뜻하지 않았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의 아픈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연구자의 부모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었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으며, 잦은 병치레로 부모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기조차 했다. 그 결과 모든 일에 자신감이 부족했고 생활이 즐겁지 않았다. 지나친 완벽주의와 책임감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으며, 낮은 자존감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다. 그러나 그 책들을 읽으면서 내면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뒤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현장 사서들이 꾸려갔던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 모임에 참여하면서 정신의학과 심리, 상담, 마음의 상처와 관련 있는 책들을 꾸준히 섭렵했다.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은 공공도서관 사서라는 연구자의 위치로 인해 직업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해 보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이어졌다. 그동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대출과 반납업무에서 벗어나 '책의 내용을 다루는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으며, 책이 지닌 치유의 힘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 것이다.

결국 2002년 11월, 당시 근무지였던 울산남부도서관에서 사서들을 중심으로 '독서치료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으며,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 목록 발간, 독서치료 코너 설치' 등 도서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2004년 상반기부터 어린이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성인(주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울산중부도서관과 울주도서관에서도 자체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행은 사서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울산지역 5개 공공도서관 중 3개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비록 운영 기간이 짧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예사로 보아 넘기기에는 참여자들의 반응이 크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평생교육강좌의 주 참여자인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살펴 보면서, 단위 도서관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어린이와 주부의 마음 상함

### 2.1 어린이의 마음 상함

아동의 정신과적 장애를 크게 나눈다면 자신

을 지나치게 조절하는 상태-불안이나 위축을 보이는-와 외적으로 나타나는 자신을 조절 못하는 상태-주의 부족, 과잉운동, 공격적 행동-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열등감, 지나친 자아 의식, 자신감의 부족 등으로 학교를 포함한 일상생활이 힘들고 정서·감정의 조절 및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장애를 정서장애라 한다. 정상 아동이 성장 도중 한 부분으로서 겪는 경한 정서문제가 아니고 그 아동의 지능, 사회적 문화 여건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정도의 정서증상이면서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에 지장이 있다는 면이 정상과 다른 점이다(박성숙 1990, 46).

2001년 부천시 정신보건센터에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시내 28개 초등학교 부모 1,060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에 대한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현재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전체 아동의 27%에 이르는 284명이 우울증, 주의집중저하, 반항적이고 도발적인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2001, 4월 11일).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성격의 틀이 형성되고 자아개념이 싹트며 학급집단에 참여하여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시기이며, 부적응 행동을 수정하고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갖추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은 늘어나는 교육 대상자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교육재정이므로, 과밀학급 등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력 중시 사회의 분위기는 아이들을 학원으로 교습소로 몰아내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텔레비전, 컴퓨터, 전자오락 등 대중매체는 아동의 고립

적이고 충동적인 폭력성향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이들은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있는 편이며, 이러한 결과로 적대심이나 과민성, 좌절 극복을 위한 인내성 부족, 왕따 현상, 낮은 학업 성취력, 무기력증 등으로 나타난다(이말연 2004, 2-3).

이러한 아이들의 정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최근에 아동 정신병리 연구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첫째, 많은 아동기 문제가 아동에게 평생 영향을 주고 또한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 둘째, 대부분의 성인 장애는 초기 아동기 상태나 경험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아동기 장애를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초기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Eric J. Mash and Russell A. Barkley 2001, 2)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의 인식으로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기관으로 종합병원 소아정신과, 개인 정신병원, 지역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재단이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 어린이들을 치료할 때에는 다양한 치료기법을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약물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가 있는데, 어린이의 경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와 같은 예술요법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김민주 2004, 17).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지는 면이 있다.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문제로 가볍게 처리되기도 하고,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신과'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껴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는 예도 있다. 어린이의 정서장애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성인 장애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아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의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 2.2 주부의 마음 상함

현대 산업사회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여성의 개인적인 성취와 발전을 지지하며 남녀동등권을 지향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은 점차 그 중요성을 상실하고 동시에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제도 및 문화 규범은 주부들에게 아내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교육과 양육문제 등 폭 넓은 역할 수행을 요구하면서 여전히 전통적인 부덕과 가사에 얽매어 두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기대와 가치 아래서 주부들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주부 우울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이 제시한 우울을 초래하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을 종합해 보면, 자기자신에 대한 존중감, 남편·자녀·시댁식구와의 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 충격적 사건의 경험 등의 사회심리적인 요인과 나이, 직업, 경제적 수준, 종교 등의 개인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중년기는 신체적인 노화와 함께 폐경을 경험하게 되어 생

리적인 능력 상실과 함께 신체적인 매력 상실로 인해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감정에 지배되어 자아존중감이 희박해질 수 있으며,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하게 되므로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어머니의 역할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 중년기는 더욱 위기가 된다(이삼연 1999, 239-247).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로 활동하면서, 부산 남구도서관에서 2003년 9월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성인독서치료 프로그램과 자녀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경은 주부들의 마음 상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 '근원 가정에서 마음 상함'으로 가장적인 부모의 태도에서 마음 상함, 아들 딸 차별에서 오는 마음 상함, 만이로서 받은 마음의 상처, 둘째, '부부관계에서 마음 상함'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닐 때 마음 상함, 성관계에서 마음 상함,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셋째, '자녀 관계에서 마음 상함'으로 자녀에게 준 상처, 부모 역할에서 오는 마음 상함,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마음 상함, 넷째, '시집관계에서 마음 상함'으로 전통적 결혼 풍습에서 받은 상처, 제사 풍습에서 받은 상처, 며느리 의무에서 마음 상함, 다섯째, '일상생활에서 마음 상함' 마지막으로 '주부자리에서 마음 상함'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김수경 2005, 278-304). 이처럼 주부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 부모, 며느리·딸, 사회인으로서 생활 속에서 소소한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회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고,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지금

까지 사회 교육은 계속적인 자기 성장이나 자기 발전이라는 수준 높은 정신적 욕구충족을 통한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부들에게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다시 정립하게 하고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주부를 위한 사회교육은 대부분 상류층 이상의 주부와 직장 여성들, 또 여가선용이나 직업 교육 등 재사회화에 국한된 프로그램만이 활성화되어 있을 뿐 주부의 가정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사회 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박은경 1997, 85).

이상의 고찰에서 연구자는 어린이와 주부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입 여지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 3.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사람은 태어나서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마음 아픔을 겪는다. 말하자면 생활인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볼 수 있다. 발달적 독서치료(developmental bibliotherapy)의 또 다른 이름인 '생활인을 위한 독서치료'는 일상 속의 상처를 덜어주고 생애의 발달과업을 순조롭게 수행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어느 의미에서 생활인을 위한 독서치료는 '정상인'을 위한 독서치료라고 할 수 있으며 예방적 기능도 가진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보통 사람의 마음 아픔

과 불편에 주로 관심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형태의 독서치료에 비해 중요성이 덜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생활인이면 누구나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은 오히려 더하다고 할 것이다(김정근, 김순화, 김은엽 2006, 근간).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임상적 독서치료(clinical bibliotherapy)보다 어린이와 주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상의 문제와 행동상의 문제를 완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생활인을 위한 독서치료 유형으로 진행되었으며, 책을 직접 읽으면서 치유의 과정을 '체험'하도록 구성하였다. 김정근 교수는 독서치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무엇보다 책을 매개로 하는 마음 치유의 '체험'에 활동의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다분히 사교육시장이 주도하는 '지식형' 모형은 곤란하다는 현실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며, '체험'은 제치고 독서치료에 '관한' 지식을 강조하는 모형은 다분히 그 동기와 유용성의 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김정근 2006, 49).

말하자면 '체험형' 독서치료는 '지식형'과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독서치료에 '관한'(about) 지식을 주로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인을 위한 독서치료에서는 치유서 읽기

자체를 강조한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의식의 밖으로 노출되고,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내면과 만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아픔의 완화와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김정근, 김순화, 김은엽 2006, 근간).

매체는 성인의 경우 비문학류인 자가치유서(self-help books)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기타 비디오 자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최근 자가치유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어떤 연구는 픽션보다 자가치유서가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더 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sup> 다만, 어린이의 경우 문학류가 대부분인 출판환경을 고려하여 문학작품을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운영 방법은 '치유적 책읽기, 치유적 글쓰기, 치유적 말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아래의 세 단계를 거쳐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치유의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유적 책읽기(혼자서 한다)
- 선정된 치유서를 한꺼번에 또는 몇 차례에 나누어 집중하며 통독한다.

1) "독서치료에서는 스캇 펙 계통의 책을 자가치유서(self-help books)라고 부른다. 문학 자료와 대비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독서치료에서는 픽션(fiction)에 많이 의존해 왔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자인 경우는 특히 그러했다. 치료 참여자는 픽션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상황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동일화(identification), 카타르시스(catharsis), 통찰(insight)의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근래 상황이 다소 바뀌고 있는 측면이 있다. 자가치유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중에는 어언간에 상황에 따른 자가치유서 자원이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있다. 여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이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는 면이 있다. 어떤 연구는 픽션보다 자가치유서가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더 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자가치유서의 효과는 책이 정신과의사나 심리치료사의 상담기능을 일정 정도 대행해주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김정근 2004c, 61)

-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목한다.
- 이 때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부터 공감과 몰입이 중요하다.
- 치유적 글쓰기(혼자서 한다)
  - 처음 치유서를 손에 들었을 때의 느낌을 적는다.
  - '나'에게 와 닿는 메시지의 강도를 적는다.
  - 읽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장을 적는다.
  - 다 읽고 났을 때 정리되는 생각을 적는다.
  -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적는다.
  - 읽고 나서 떠오르는 얼굴, 읽기를 권하고 싶은 사람,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적는다.
  - 위의 내용을 메모 형식 또는 문장으로 솔직하게 적는다.
- 치유적 말하기(모임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다)
  - 준비해 온 '치유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입을 연다.
  - '나'를 남김없이 한껏 열어 보이며 표현한다. 내키지 않으면 조금만 열어도 된다.
  - 다른 참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 다른 참여자들과 서로 마주 보며 토론한다 (김정근 2004b, 58).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체험형' 독서치료의 특징은, 상처의 부위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되고, 그 상처의 처방이라 볼 수 있는 '매체'가 따르며, 진행자보다 참여자가 주체가 되고, 토론식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 상호 교감을 통하여 치료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실제 울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

##### 4.1 어린이 독서치료 프로그램

###### (1) 울산남부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치료

울산남부도서관에서는 2004년 상반기부터 어린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매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초등학교 5~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12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남부도서관에서 상·하반기 운영하는 평생교육강좌 진행시 일괄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sup>2)</sup> 어린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빈번히 부딪히는 문제·고민을 상황으로 구분하였다.<sup>3)</sup>

강사는 연구자와 이기명 사서, 같은 해 하반기

2) 어린이 독서치료와 성인 독서치료의 경우 참여자는 각 도서관별로 상·하반기 및 방학 기간 중에 운영되는 다른 과목의 평생교육강좌 수강자들과 일괄 모집하였다.

3)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나에게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와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마지막에는 성편견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는 형태의 상황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나 문제가 단순히 본인의 책임, 본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족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는데 대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에는 이미경 사서와 이기명 사서 등 도서관 사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업 매체는 도서관 예산으로 5권씩 구입을 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 강의 계획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5. 상반기 울산중부도서관 어린이 독서치료 강의 계획서〉

- 1회 오리엔테이션/독서치료에 대한 이해/자기 소개
- 2회 상황 : 자이즌증감 형성/매체: ①맥스 루카도, 너는 특별하단다. 아기장수의날개 옮김. 고슴도치, 2002. ②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사계절, 2000.
- 3회 상황: 외모/매체: ①안드레아 샤희. 난 크고 싶어. 이연수 옮김. 그린북, 2002. ②미카엘 올리비에. 똥보 내 인생. 조현실 옮김. 바람의 아이들, 2004.
- 4회 상황: 화/두려움/매체: ①미셀린느 먼디.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4. ②사라 보세. 진정한 용기가 필요해. 유혜자 옮김. 중앙출판사, 2001.
- 5회 상황: 왕따/매체: ①우메다 순사코·우메다 요시코. 모르는 척. 송영숙 옮김. 길벗어린이, 1998. ②문선이. 양파의 왕따일기. 파랑새어린이, 2002.
- 6회 상황: 친구사귀기/매체: ①나카노 히로카주. 외톨이 사자는 친구가 없대요. 이영준 옮김. 한림, 2000. ②엘렌느 바송. 난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이경혜 옮김. 중앙출판사, 2001.
- 7회 상황: 형제/매체: ①후쿠다 이와오. 난 형이

니까. 김난주 옮김. 아이세움, 2002. ②김종렬. 내 동생은 못 말려. 아이세움, 2002.

- 8회 상황: 부모/매체: ①A.노르덴. 잔소리 해방의 날. 경기대 옮김. 온누리, 2001. ②노경실. 아버지와 아들. 시공주니어, 1998.
- 9회 상황: 이혼·재혼/매체: ①배빗 콜. 따로 따로 행복하게. 고정아 옮김. 보림, 1999. ②김향이. 나답게와 나고은. 사계절, 2001.
- 10회 상황: 차이·장애/매체: ①J. W. 피터슨.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박병철 옮김. 히말라야, 1995. ②홍기. 꿀찌를 하더라도 달려보고 싶어. 여명미디어, 2002.
- 11회 상황: 성역할/매체: ①앤서니 브라운. 돼지책. 허은미 옮김. 웅진닷컴, 2001. ②키르스텐 보이에. 아빠는 전업 주부. 박양규 옮김. 비룡소, 2003.
- 12회 상황: 죽음·학대/매체: ①유리 브레이바르트. 죽으면 아픈 것이 나올까요. 김현희 옮김. 느낌보, 2002. ②미라 로베. 내 친구에게 생긴 일. 김세은 옮김. 크레용 하우스, 2001.

(2) 울산중부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치료

울산중부도서관에서는 2005년 여름방학 기간인 8월 중에 매주 수·목요일 초등학교 3~4학년 15명을 대상으로, 2시간, 6회 과정의 어린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총 11개의 상황을 다루었으며, 방학 기간을 이용한 것은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노는 토요일이 생기면서 주말보다 평일 시간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2005. 하반기 울산중부도서관 어린이 독



### 서치료 강의 계획서)

- 1회 오리엔테이션/독서치료의 이해/자기소개 상황: 자아존중감/매체: ①맥스 루카도, 너는 특별하다. 아기장수의 날개 옮김. 고슴도치, 2002.
- 2회 상황: 외모·왕따/매체: ①안드레아 샬빅, 난 크고 싶어. 이연수 옮김. 그린·북, 2003. ②야시마 타로, 까마귀 소년. 윤구병 옮김. 비룡소, 1996.
- 3회 상황: 부모·형제/매체: ①A. 노르덴, 잔소리 해방의 날. 경기대아동청소년문학연구실 옮김. 은누리, 2001. ②구두룬 맥스 나는 너랑 함께 있어서 좋을 때가 더 많아. 문성원 옮김. 시공주니어, 2003. 24-37쪽.
- 4회 상황: 신체장애·성폭력/매체: ①J. W. 피터슨,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박병철 옮김. 히말라야, 2000. ②질 티보, 네 잘못이 아니야, 나탈리!. 이정주 옮김. 작가정신, 2004.
- 5회 상황: 화·스트레스/매체: ①미셸린느 먼디,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4. ②미셸린느 먼디, 나, 스트레스 받았어!.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4.
- 6회 상황: 두려움·죽음/매체: ①몰리 위겐드, 하나도 무섭지 않아.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4. ②미셸린느 먼디, 슬플때도 있는 거야.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4.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글을 쓰면서 치유의 과정

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자 쪽에서 질문지를 배부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때 질문지는 책의 내용에 대해 깊이 다루기보다 책을 읽고 난 후 참여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마음 상태를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림그리기'와 같은 독후활동을 병행하기도 했다.

### 4.2 성인(주부) 독서치료 프로그램

(1) 울산중부도서관의 성인(주부) 독서치료  
울산중부도서관에서는 2005년 하반기 처음으로 '성인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주부 15명 대상으로 연구자의 진행 아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2회 과정으로 운영되었다.<sup>4)</sup> 강의는 상황에 맞는 책읽기와 토론식 수업을 통하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의 근원을 인식하고, 그 상처가 완화되거나 치유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참여자는 아래에 제시된 2권의 책 중에서 미리 1권을 선택하여 읽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 <2005. 하반기 울산중부도서관 성인(주부) 독서치료 강의 계획서>

1회 오리엔테이션/마음의 상처와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자기 소개

2회 상황: 성장의 아픔/매체: ①이호철, 학대받는 아이들. 보리, 2001. ②이희경, 마음속의 그림책. 미래M&B, 2000.

4) 참여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30대가 70%, 기타 20대와 40대가 30%를 차지했다.

- 3회 상황: 부모/매체: ①수잔 포워드, 흔들리는 부모들. 한창환 옮김. 사피엔티아, 2000. ②하임 G. 기너트, 부모와 아이 사이. 신흥민 옮김. 양철북, 2003.
- 4회 상황: 남자와 여자/매체: ①알리스 슈바르처. 아주 작은 차이. 김재희 옮김. 이프, 2001. ②김성목,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김영사, 2003.
- 5회 상황: 가부장사회/매체: ①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 삼십년 동안 가부장제와 맞서 싸운 한 여성작가의 외침. 이프, 2000. ②김현주, 장남과 그의 아내. 새물결, 2001. ③ [비디오 자료] 이병혜의 집중조명. 이하천: 나는 가부장제를 거부한다. YTN, 2002.
- 6회 상황: 정신건강의 이해/매체: ①최훈동,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정신의학이야기. 한울, 2001. ②김형경, 사람풍경. 아침바다, 2004.
- 7회 상황: 화/매체: ①틱낫한. 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최수민 옮김. 명진출판사, 2002. ②베티 퍼킨스, 내 안의 화 다스리기. 박운정 옮김. Human&Books, 2003.
- 8회 상황: 우울증/매체: ①김혜남, 왜 나만 우울한 걸까. 중앙M&B, 2003. ②베브 아이스베트, 겁정개 블랙키의 우울증 탈출기. 김은령 옮김. 명진출판사, 2004. ③ [비디오 자료] 추적 60분. 우울증의 공포, 당신의 일상을 노린다. KBS, 2004.
- 9회 상황: 성인아이/매체: ①최현주, 위장된 분노의 치유. 규장, 1995. ②C. L. 휘트필드,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발견과 치유를 위한 안내서. 김응교·이인출 옮김. 글샘, 1995.
- 10회 상황: 용서/매체: ①달라이 라마·빅터 첸,

용서. 류시화 옮김. 오래된 미래, 2004. ②재니스 A. 스피링,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양은모 옮김. 문이당, 2004.

- 11회 상황: 생활 속의 상처/매체: ①리처드 칼슨,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1). 정영문 옮김. 창작시대, 2001. ②배르벨 바르테츠키, 따귀 맞은 영혼. 장현숙 옮김. 궁리, 2002.
- 12회 상황: 삶은 어렵다/매체: ①스캇 펙, 아직도 가야 할 길. 신승철·이종만 옮김. 열음사, 2004. ②마무리 및 평가

## (2) 울산남부도서관의 자녀독서치료.

울산남부도서관은 2004년 상·하반기와 2005년 상반기 3회에 걸쳐 성인(주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05년 하반기에는 자녀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1회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진행자는 울산남부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우귀녀, 이기명 사서가 격주로 공동 진행을 맡았다. 강의목표는 자녀의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특성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 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울산중부도서관과 울산남부도서관은 인접 해 있는 지역의 이점을 고려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성인독서치료와 자녀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번갈아 개설하여 참여자들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거나 1년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2005. 하반기 울산남부도서관 자녀독서치료 강의 계획서>

- 1회 오리엔테이션/독서치료에 대한 이해/자기 소개
- 2회 상황: 성장의 아픔/매체: ①W. 휴 미실다인. 원만한 정서 생활을 가로막는 몸에 밴 어린 시절. 이종범·이석규 옮김. 가톨릭, 2001. ②진태원. 엄마가 내 맘을 알아?. 느낌이있는 책, 2004.
- 3회 상황: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매체: ①하임 G. 기너트. 부모와 아이 사이. 신홍민 옮김. 양철북, 2003. ②이희경. 마음속의 그림책. 미래M&B, 2000. ③안네마리 노르덴. 잔소리 해방의 날. 경기대학교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실 옮김. 온누리, 1999. ④공지희. 영모가 사라졌다. 비룡소, 2003.
- 4회 상황: 정서장애/매체: ①V. M. 엑슬린. 딥스 샘터, 1999. ②변영인. 우리 아이가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책, 2002. ③바바라 러셀. 나의 라디오 아들. 한연, 2004.
- 5회 상황: 청소년기의 정서/매체: ①메리 파이퍼. 내 딸이 여자가 될 때. 김영혜·김영재 옮김. 문학동네, 2000. ②스티브 비덜프. 아들 키우는 부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김선경 옮김. 북하우스, 2003. ③한국글쓰기연구회 엮음. 날고 싶지만. 보리, 2001.
- 6회 상황: 화·두려움/매체: ①틱낫한. 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최수민 옮김. 명진출판사, 2002. ②베티 퍼킨스 내 안의 화 다스리기. 박윤정 옮김. Human&Books, 2003. ③미셸린느 먼디. 화가 나는건 당연해.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3. ④다니엘 포세트. 칠판 앞에 나가기 싫어. 최윤정 옮김. 비룡소, 1999.
- 7회 상황: 따돌림/매체: ①이훈구.(심리학자 이훈구 교수의)교실이야기(1). 법문사, 2001.

- ④우메다 순사코·우메다 요시코 모르는 척. 송영숙 옮김. 길벗어린이, 1998. ⑤문선이. 양파의 왕따일기. 파랑새어린이, 2002.
- 8회 상황: 학대/매체: ①이호철. 학대받는 아이들. 보리, 2001. ②니콜 파브르. 상처받은 아이들. 김주경 옮김. 동문선, 2003. ③미라 로베. 내 친구에게 생긴 일. 김세은 옮김. 크레용하우스, 2001.
- 9회 상황: 상실감·이혼/매체: ①존 제임스·러셀 프리드만·레슬리 랜던 매슈스. 우리 아이가 슬퍼할 때. 홍현숙 옮김. 북하우스, 2004. ②유리 브레이바르트.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 김현희 옮김. 느림보, 2002. ③배빗 콜. 따로 따로 행복하게. 고정아 옮김. 보림, 1999. ④네레 마어. 아빠는 지금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 이지연 옮김. 아이세움, 2001.
- 10회 상황: 성폭력/매체: ①김성애·전명희.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또하나의 문화, 2001. ②질 티보. 네 잘못이 아니야. 나탈리!. 이정주 옮김. 작가정신, 2004. ③이금이. 유진과 유진. 푸른책들, 2004.
- 11회 상황: 자존감/매체: ①리처드 칼슨.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박혜진 옮김. 창해, 2000. ②맥스 루카도. 너는 특별하단다. 아기장수의 날개 옮김. 고슴도치, 2002. ③마무리

### (3) 울주도서관의 성인(주부) 독서치료

울주도서관에서는 2005년 4월 처음으로 '성인(주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주부 5명을 대상으로 김정자 관장, 박임수 팀장의 진행 아래 목요일 혹은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총 17회 과정으로 운

영하였다. 이 도서관은 처음 월 1회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참여자의 호응이 높아 격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내용은 상황별로 주어진 매체를 읽고 토론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자 모두 상호교감을 통한 독서치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06년 상반기에는 참여자의 수가 늘어 3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2005. 울주도서관 성인(주부) 독서치료 강의 계획서〉

- 1회 오리엔테이션: 마음의 상처와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 [비디오자료] 길모퉁이
- 2회 상황: 성장의 아픔/매체: ①니콜 파브르, 상처받은 아이들, 김주경 옮김, 동문선, 2003.
- 3회 상황: 어른들의 무지와 몰이해/매체: ①이희경, 마음속의 그림책, 미래M&B, 2000. ②이훈구,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야기, 2001.
- 4회 상황: 남자와 여자/매체: ①김성목,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김영사, 2003. ②알리스 슈바르처, 아주 작은 차이, 김재희 옮김, 이프, 2001.
- 5회 상황: 정신건강의 이해/매체: ①김형경, 바람풍경, 아침바다, 2004.
- 6회 상황: 가부장사회/매체: ①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 이프, 2000.
- 7회 상황: 성인아이/매체: ①최현주, 위장된 분노의 치유, 규장, 1995.
- 8회 상황: 우울증/매체: ①김혜남, 왜 나만 우울한 걸까, 중앙M&B, 2003.
- 9회 상황: 병과 죽음/매체: ①최화숙,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월간조선사, 2002. ②미치 앨봄,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공경희 옮김, 세종서적, 1998.

- 10회 상황: 가부장사회/매체: ①전인권, 남자의 탄생: 한아이의 유년기를 통해 보는 한국 남자의 정체성 형성과정, 푸른숲, 2003.
- 11회 상황: 부모/매체: ①수잔 포워드, 흔들리는 부모들, 한창환 옮김, 사피엔티아, 2000.
- 12회 상황: 자아찾기/매체: ①매리 파이퍼, 내 딸이 여자가 될 때: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딸과 여자들의 44가지 사례연구, 김영재 옮김, 문학동네, 1999.
- 13회 상황: 가정폭력/매체: ①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하나의 문화, 2001.
- 14회 상황: 자아존중/매체: ①베르벨 바르데츠키, 따귀맞은 영혼, 장현숙 옮김, 궁리, 2002.
- 15회 상황: 주부1/매체: ①김별아, 식구, 대교베텔스만, 2005.
- 16회 상황: 주부2/매체: ①오한숙희, 수다가 사랑살려, 웅진닷컴, 2004.
- 17회 상황: 삶은 어렵다/매체: ①스캇 펙, 아직도 가야할 길, 신승철·이종만 옮김, 열음사, 2004. ②마무리

성인(주부) 독서치료와 자녀독서치료의 경우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매체는 비슷하지만, 참여자들이 다르고 개인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치유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독서치료에서 지향하는 기본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5.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자 반응

### 5.1 진행자(사서) 측면

일반적으로 독서치료에 있어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을 '독서치료사(bibliotherapist)'라 부른다. 그러나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모임의 리더(leader), 진행자(facilitator), 인도자(presider) 혹은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하게 된다(김정근 2004d, 129).

'신성화'를 이끌고 있는 이영애는 "우리가 하는 일은 정신 건강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본인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단체를 소개하고, 또 가정생활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책들과 테이프를 소개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안내인' 내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이영애 2002, 8)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상처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는 데 주저하

지 않는 봉사정신과 참여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독서치료 자료에 대해 이해와 토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모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교수가 이끌었던 책·정·연의 읽기 모임 참여, 대학원의 독서치료 과목 수강,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원의 독서요법사 I, II 과정의 참여와 수료, 울산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 연구 모임 참여' 등의 과정을 통해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독서치료에 대한 기법이나 사변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참여자의 입장에서 치유서를 읽고 말하고 표현하면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치료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하반기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들의 자발적인 의지 하에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원에 1년 과정의 독서요법사 과정 개설을 요청하여 18명의 도서관 사서와 직원들이 울산남부도서관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수업<sup>5)</sup>을 받고 있다.

또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서 '치료사'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독서행위 자체라고

5) 이 과정의 1학기(2005. 하반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 상황: 삶은 복잡하다. 오리엔테이션 및 독서치료의 이해/매체: [비디오 자료] 홍소장의 가을; 2회 상황: 성장의 아픔-유년기, 청소년기, 독서치료의 정의, 독서치료의 이론적 배경과 역사/매체: ①니콜 파브르, 상처받은 아이들: 유년기의 상처를 말하고, 이해하고, 극복하기. 김주경 옮김. 동문선, 2003. ②변영인, 우리 아이가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책, 2002.; 3회 상황: 어른들의 무지와 몰이해, 독서치료의 목적과 가치, 독서치료의 과정/매체: ①이희경, 마음속의 그림책. 미래M&B, 2000. ②이훈구,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야기, 2001.; 4회 상황: 자아 찾기, 독서치료의 계획/매체: ①메리 파이퍼, 내 딸이 여자가 될 때: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딸과 여자들의 44가지 사례 연구. 김영재 옮김. 문학동네, 1999. ②버지니아 M. 액슬린, 딥스. 주정일·이원영 옮김. 샘터, 2002.; 5회 상황: 부모, 독서치료의 전략, 독서치료의 활동/매체: ①김정일, 이런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든다. 박영출출판사, 2002. ②수잔 포워드, 흔들리는 부모들. 한창환 옮김. 사피엔티아, 2000.; 6회 상황: 가부장사회, 독서치료 자료 I/매체: ①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 삼십년 동안 가부장제와 맞서 싸운 한 여성작가의 외침. 이프, 2000. ②전인권, 남자의 탄생: 한 아이의 유년기를 통해 보는 한국 남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 푸른숲, 2003.; 7회 상황: 정신건강의

할 수도 있다(김정근 2004a, 149).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과 느낌을 이야기하고, 참여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진행자 사이의 끝없는 상호교감 속에서 서로 자신만이 겪고 있는 고유한 경험과 상처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정 정도 치유의 과정과 마음의 씻김을 체험한다. 다만, 김정근 교수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이야기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자는 '의도적인 소극성'을 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찰을 말해 보자면 공공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은 독서치료를 포함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때로는 '겁을 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때도 있었다. 특히,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강의료를 잘 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염려를 많이 했다. 그 동안 사서들은 독서교실을 비롯하여 관련 업무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을

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 강좌의 경우 사서가 강사로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강의란 강사가 모든 것을 준비하여 참여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 선풍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서들은 기존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의 입장이라기보다 참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sup>6)</sup>하며, 치유서를 통해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처를 밖으로 드러내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서 스스로 치유서를 읽고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울산남부도서관 2003, 독서치료 연구모임 일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사서 자신의 내부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통찰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기술적인 측면보다 인간의 아

이해/매체: ①최훈동.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정신의학 이야기. 한울, 2001. ②김형경. 사람풍경. 아침바다, 2004. : 8회 상황: 가정폭력, 독서치료 자료 II/매체: ①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한나의문화, 2001. ② [비디오 자료] 돌로레스 클레이븐 : 9회 상황: 성인아이(adult child), 독서치료 자료 III/매체: ①최현주. 위장된 분노의 치유. 규장, 1995. ②C. L. 휘트필드.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역기능가정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발견과 치유를 위한 안내서. 김용교·이인출 옮김. 글샘, 1997. : 10회 상황: 성폭력, 독서치료자의 자격/매체: ①사미라 벨릴. 나는 인생을 믿는다: 고통받는 소녀에서 당당한 여성으로. 용경식 옮김. 마음산책, 2003. ②이금희. 유진과 유진. 푸른책들, 2004. : 11회 상황: 사랑, 독서치료자의 자질/매체: ①배리 비셀·조이스 비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전경자 옮김. 열린, 2002. ②로빈 노우드.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이미영 옮김. 한마음사, 1996. : 12회 상황: 우울증, 독서치료 참여자 I/매체: ①김혜남. 왜 나만 우울한 걸까? 중앙M&B, 2003. ②베브 아이스베트. 잠정계 블랙키의 우울증 탈출기. 김은령 옮김. 명진출판, 2003. : 13회 상황: 용서, 독서치료 참여자 II/매체: ①프레드 러스킨. 용서: 나를 위한 용서, 그 아름다운 용서의 기술. 장현숙 옮김. 중앙M&B, 2003. ②달라이 라마·빅터 첸. 용서. 류시화 옮김. 오래된 미래, 2004. : 14회 상황: 영원한 순환/매체: ① [비디오 자료] 인체대탐험 7. 「영원한 순환: 죽음」. KBS(BBC 제작), 2002. 9. 8. ②최화숙.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인생의 마감시간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서 만날 것인가. 월간조선사, 2004. : 15회 상황: 삶은 어렵다, 마무리/매체: ①스캇 펙. 아직도 가야 할 길. 신승철·이종만 옮김. 열음사, 2004.

6) "공감은 연민이나 동감과도 구분되는 감정이라고 한다. 연민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전제로 한 감정이고, 동감은 객관적 태도를 잃고 상대방에게 휩쓸리기 쉬운 감정이다. 반면 공감은 중립적이고 비판단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내면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것이라 한다. 한 인간의 비통, 애착, 공포, 분노... 그리하여 인간이 그토록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는 상태이다."(김형경 2005, 273)

품에 대한 동정심과 봉사하는 마음”(김정근 2004a, 148)을 유지하려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서가 주체가 되어 콘텐츠를 장악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사서로서 직업에 대한 보람을 쌓아가고 있다.

## 5.2 참여자 측면

### (1) 어린이 독서치료

어린이 독서치료는 ‘아이들의 마음은 과연 편안 한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아이들이 웃고 뛰어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리라 생각한다. ‘너희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 걸’이라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서 나름대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이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부재로 비록 그러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묻어 두게 된다.

상처들 중에는 찢리고 터지고 깨지고 찢어진 온갖 상처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미처 표현할 수 없거나, 혹은 표현할 줄 모르는 고통과 그 양상들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한 채 옆으로 제쳐놓는 수가 많다. 또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모두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상처 속에 빠져 들어가, 아이의 어두

움·두려움·고통·무력감을 함께 느끼고 있기가 쉽다(니콜 파브르 2003, 9). 그리고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면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옳지 않다. 말에 의한 폭력은 그와 같은 정도로, 때로는 그 이상으로 남을 해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모에 의한 모욕적인 욕설, 창피를 주는 행위, 바보 취급하는 말 등은 아이의 마음을 해치며, 오래도록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수잔 포워드 2000, 109).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무력하게 마비되어 가는 아이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상처를 드러내어 치유하고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기는 했지만, 과연 아이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개개인의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치유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외로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솔직하게 표현했다.

아울러 매주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책읽기를 통해 진행자와 참여자 사이의 대화가 더 풍성해 진 것으로 생각된다. 책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가족과 친구, 사회를 바라보면서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첫 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밝은 표정으로 타인의 시선을 받아주면서 발표를 할 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들 자신의 마음 깊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기들이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스캇 펙 2001, 24-25) 수업이

끝나던 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독서 치료를 통해 스스로 좋아지거나 치유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라는 질문을 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로 그동안 자신들이 체험했던 독서치료 과정의 효과를 이야기했다.

사실 밖으로는 고민이 없는 척하며 지냈지만 고민이 많아서 잠자기 전에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잘 자지 못했는데 독서치료를 하면서 고민이 많이 줄어들었고, 잠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다(울산남부도서관 2004, 김나리(가명), 독서치료 수업 자료).

그전엔 나도 모르게 무언가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가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야기 주인공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주인공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헤매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울산남부도서관 2004, 김보미(가명), 독서치료 수업 자료).

나는 어린이 독서치료를 하고 나서 그 동안 앓고 있던 마음의 병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고민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털어놓으라고 하셨지만,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독서치료에서 고민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가뿐하고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울산남부도서관 2004, 이정석(가명), 독서치료 수업 자료).

이 외에 '어머니가 원하는 착한 어린이의 탈을 벗고 내 주장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참여자와 '독서치료 후 가족에게 말 걸기가

편해졌다. 부모·형제 및 친구와의 사이가 좋아졌다. 슬픈 느낌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버리고 있다. 나 혼자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의 위안이 된다.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화를 낼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등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러한 반응을 들으면서 '참여자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처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자신을 스스로 보살피면서, 혹은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 쪽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 (2) 성인(주부) 독서치료

처음 연구자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할 때 염려했던 부분은 내 자신이 치유서를 읽으면서 체험했던 반응들을 참여자들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 이면에는 연구자의 경우 어느 정도 꾸준히 책을 읽는 직업과 관심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부들은 그동안 가정주부로 생활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책을 통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오만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다.

사실 그동안 책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지식적인 욕구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읽거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접하는 수단으로 비춰져 왔다.7)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서 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가졌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책은 항상 인간의 머리 위에 존재하는 신성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서 2~3회째 접어들면 참여자들로부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느 순간 울음이 터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한 반응이 아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라는 그들의 말 속에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만나는 지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독서치료에서 책은 더 이상 시험치듯이 읽고 외우는 매개물이 아니다. 나를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비가 오면 강물이 뒤집어져 흙탕물이 되듯이, 막대기로 휘저어 구멍물이 일어나듯 감정이 복잡해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도 오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음이 정리된다. 맑은 물을 따루어 내고 찌꺼기는 버리게 된다(울산중부도서관 2005, 강서연(가명), 독서치료 수업 자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존심이라 생각했

다. 항상 고상한 말, 고상한 행동을 하면서 나를 포장해 왔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더 아프게 했던 것 같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남이 보기에 유치하더라도 드러내기로 했다. 마음은 오히려 더 편하다(울산중부도서관 2005, 조석란(가명), 독서치료 수업 자료).

이와 관련하여 이번 프로그램 진행에서는 '좋은 책을 권해 줘서 고맙다', '이런 책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행운이었다'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했다. 이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용기'가 필요했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수업을 마치던 날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글쓰기를 했으며, 그 중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게 되었고, 몰라서 행해왔던 나의 부정적인 습관이나 행동들이 조금씩 걸러져서 표현되고 있다. 내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주변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해 왔던 행동들을 10년 후에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내 자신을 성찰해 나가면서 나아지는 내 모습이 예쁘다(울산중부도서관 2005, 나희숙(가명), 독서치료 수업 자료).

7) 김정근 교수는 책이 전달하는 심층 메시지를 세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훈육의 메시지'이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그리고 지금도 좋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각성을 위한 메시지, 깨우침을 주는 메시지가 그것이다. 둘째, '능력을 주는 메시지'이다. 성취의 수단이 되는 메시지이며 주로 '정보', '지식'과 관련을 가진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영역이며, 이 분야의 메시지를 잘 습득하면 사회적 진출이 용이하며 성공이 보장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두 영역의 메시지를 강조해 왔으며, 김정근 교수는 여기에 더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제3의 메시지 영역을 강조한다. 그것은 '치유하는 메시지'로 인간을 귀납적으로 이해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쓰다듬으며, 장애를 뛰어넘게 해 준다. 말하자면 제3의 메시지는 '상처를 치유하고 성숙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말한다."(김정근 2004c, 60)

혼자서 고민하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고,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린 수도 있었는데 여러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얻을 수 있는 결실이었다. 앞으로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그러한 일들이 나 자신의 성숙을 가져오는 일이라 생각한다(울산중부도서관 2005, 김선희(가명), 독서치료 수업 자료).

마음이 상하든 상하지 않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기에 나 스스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풀어 나간다면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문제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연습과 내 안의 지도를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자주 내보임으로써 잘못된 부분들을 건강하게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울산중부도서관 2005, 최미라(가명), 독서치료 수업 자료).

나를 찾아가는 길이나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서서히 자신을 통찰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살피기 시작했으며, 자신감과 삶의 즐거움·여유를 회복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이 길이 아주 긴 시간이 될 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행복을 향한 문을 연 것 같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한 그들의 행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4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울산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 참여자들은 '봄날'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1회 독서치료 동아리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명시에서 개최된 2005년 9월 전국평생학습축제에서

울산지역 대표로 동아리 사례 발표 부분에 참가하기도 했다. 2005년 하반기 울산중부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주 1회 모임을 꾸려 가고 있다.

## 6.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진행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운영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치유서의 경우 그 선정 방법이 다소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 전문분과위원회의 하나인 독서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 성인편』(한국도서관협회, 2004. 12)과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 청소년·어린이편』(한국도서관협회, 2005. 12)을 권장한다. 이들 책에는 성인 독서치료를 위한 30여 개의 상황과 청소년을 위한 23개의 상황, 어린이를 위한 32개의 상황이 설정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른 성인 도서 138권, 부모, 교사, 사서를 위한 도서 55권, 청소년 도서 75권, 어린이 도서 149권에 대하여 초록이 되어 있다.

둘째,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회복하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울산지역에서는 정규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자발적인 동아리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울주

도서관에서는 다른 도서관과 달리 기간을 늘어 17회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독서치료기초, 독서치료심화 등 1년 과정의 프로그램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

셋째,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마음에는 감정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개설되는 프로그램은 운영 목적과 예산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용을 계획해야 한다. 프로그램 계획 시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처와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지만, 여전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따라서 앞으로 최훈동, 이규환, 민성길, 스캇 펙, W. 휴 미실다인 등 정신과 전문의들이 임상 경험에 기초하여 저술한 정신의학 계통의 매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매체는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져 있으며, 독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자는 도서관에서 주부들 대상의 평생교육 강좌는 무료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가사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사로 넘겼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독서치료는 참여자 개인의 이야기부터 가족, 주변인들의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수업이 시작되는 첫날 참여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혹시 그런 일

이 일어나더라도 덜 당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며,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부분을 반드시 표현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여 좀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도록 미리 이야기를 한다.

다섯째, 집단치료 형태에서는 참여자의 발언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하지만, 발언에 대한 '비밀 보장'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어찌면 가장 내밀한 부분은 드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가끔씩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자가 근무 중이라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지만 동아리 모임에서 좀 더 깊은 통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 현상을 지켜보면서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일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권하고 있다.

## 7. 나오며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나 자신과 아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감정이 수시로 들쭉날쭉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내 모습을 관찰하고 원인을 이해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측면에서 해결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다행이죠. 다른 지역에 사는 내 동생에게

권해주려고 해도 거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대요. 그렇다고 전문 기관에 상담을 받자니 비용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울산중부도서관 2006, 김인애(가명), 독서치료 수업 자료).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쯤이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속에 그동안 자신들의 변화 체험을 회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말들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는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주위의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자가치유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느꼈던 아픔과 고통, 치유의 '체험'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도 관찰된다. 이제 독서치료는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으며, 상처의 발견과 회복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좀 더 절실히 느끼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말문을 연다. 이러한 반응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서로서의 보람과 책임감도 함께 고민하게 된다.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상황과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화 등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다. 그러나 단위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한다면 실천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의 정신건강의 회복에 기여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상업성을 따르지 않으려는 '진정성'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다시 참여자의 치유 체험과 연결이 된다. 독서치료 활동에서 참여자들이 변화를 체험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밖의 모든 노력은 공허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운영은 이 치유 체험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김정근 2005, 173). 따라서 진행자로 활동할 사서는 '연구모임'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치유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정서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회복의 과정을 '체험'할 것을 권한다. 연구자의 경우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픔을 직면했던 경험이 프로그램 진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진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 위주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울산지역 이외에도 부산의 남구도서관과 금정도서관, 연산도서관, 구덕도서관, 서동도서관, 경남의 양산도서관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을 넘어 경기도 평택분관 독서치료 동아리 "새봄"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성경희 2005, 121-135). 연구자는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언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과 밀착되는 날을 만들어 나가리라는 희망은 감히 가져 본다.

## 참 고 문 헌

- 김민주. 2004. 『어린이의 상한 마음을 돌보기 위한 독서치료』. 김정근 기획·감수. 서울: 한울.
- 김수경. 2005. 주부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실제 : 주부의 마음 상함과 상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269-307.
- 김정근. 2004(a). 독서치료 소개하는 책과 모임들. 『출판저널』, 342: 148-149.
- \_\_\_\_\_. 2004(b). 상처받은 마음의 유능한 주치의. 독서. 『사람과 책』, 56-59.
- \_\_\_\_\_. 2004(c). 스킷 펙(M. Scott Peck)을 아십니까?. 『國會圖書館報』, 41(6): 58-61.
- \_\_\_\_\_. 2004(d). 치료사는 누구인가?. 『출판저널』, 347: 128-129.
- \_\_\_\_\_. 2005. 독서치료에서 '진정성'의 요소. 『도서관』, 60(2): 163-186.
- \_\_\_\_\_. 2006. 독서치료에서 도서관 버전 만들기. 『도서관문화』, 47(5): 49-51.
- \_\_\_\_\_. 김순화, 김은엽. 2006. 『생활인을 위한 독서치료』(가제). 근간.
- 김형경. 2005. 『사람풍경』. 서울: 아침바다.
- 박성숙. 1990. 아동기 정서장애.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2): 46-53.
- 박은경. 1997.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와 사회교육. 『아동교육』, 6(2): 84-104.
- 성경희. 2005. 평택분관 독서치료 동아리 "새봄" 활동 소개 및 제언. 『경기도사서연구회지』, 10(1): 121-135.
- 우경옥. 2006. 공공도서관에 대한 단상. 『도서관문화』, 47(4): 49-51.
- 울산남부도서관. 2003. 독서치료 연구모임 일시. 2월 6일
- \_\_\_\_\_. 2004. 독서치료 수업 자료. 5월
- 울산중부도서관. 2005. 독서치료 수업 자료. 10월
- \_\_\_\_\_. 2006. 독서치료 수업 자료. 5월
- 이말연. 2004. 『스트레스 대처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삼연. 1999. 주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9: 238-265.
- 이영애. 2002. 『책읽기를 통한 치유』. 서울: 흥성사.
- 『조선일보』. 2001. 부천 초등학생 27% 정서불안. 4월 11일.
- 파브리, 니콜. 2003. 『상처받은 아이들 : 유년기의 상처를 말하고, 이해하고, 극복하기』. 김주경 옮김. 서울: 동문선.
- 펙, 스킷. 2001. 『아직도 가야 할 길』. 신승철, 이종만 옮김. 서울: 열음사.
- 포워드, 수잔. 2000. 『흔들리는 부모들 : 부모의 역할이 다음 세대의 인생을 좌우한다』. 한창환 옮김. 서울: 사피엔티아.
- Mash, Eric J. and Russell A. Barkley. 2001. 『아동정신병리』. 이현진 외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